



水邊情談

서울에 있으면서 수도물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 탓에 수도물을 끓여 마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은근히 걱정이 되어 생수를 사서 마시곤 했었다. 그래서 설악산의 십이선녀탕이나 백담계곡등을 지나면서는 그 맑은 물이 오래동안 오염되지 않고 유지되도록 산신령한테 빌었었는데, 얼마나 효험이 있는지는 계속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러시아에 와서도 처음 부닥친 문제는 식수였다. 블라디보스토크의 수도물은 물통에 하루 정도 받아 두고 윗물만 떠서 보리차를

오직 수도물 때문에 치아가 부식된다는 이야기는 조금 과장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러시아 여학생들이 머리숱이 적은 나를 보면서 “교수님, 블라디보스토크의 물이 안좋아서 머리 감을 때 머리가 많이 빠지나요?”라고 말하면서 미안해 하는 것을 보면 수질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블라디보스토크는 강을 접하지 못하고 바다로 둘러싸인 도시이기 때문에 근교의 세단카, 바가타야, 아르좁모빅카 등 세곳의 강물을 섞어서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블라디보스토크의 물이 러시아를 대표하는 물은 아니다.

체제기간 동안 내가 러시아에서 본 강물은 모스크바의 불가강, 상트페테르부르크(레닌그라드)의 네바강, 이루쿠츠크의 앙가라강 및 바이칼 호수, 하바로브스크의 아무르 강과 우수리강, 나호트카의 파르티잔스카야강, 아르좁의 아르좁모빅카 강, 핫산의 두만강 등이었다. 나호트카와 아르좁에 있는 강들의 풍경은 우리나라 시골의 강모습을 연상시켜 친근감을 갖게 했지만 물색깔이 그리 맑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물색깔이 가장 실망스러웠던 강은 두만강이었다.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이라는 가사 때문에 그래도 웬만큼은 될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바라보이는 두만강에 아직도 노젓는 뱃사공은 보였지만 (그는 중국사람이었지만) 두만

물과 눈물

끓여 마셔야 안심이 되는 물이었다. 물론 그냥 먹어도 죽지는 않겠지만, 이곳 사람들의 치아상태를 보면 그냥 마셔서는 안되는 이유를 금방 알 수 있다.

양치질을 할 때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도물을 그대로 사용하면 치아를 부식시키는 물질이 치아에 고스란히 남게 된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의 상당수는 치아를 금으로 도배해 놓은 모습을 하고 있다. 따라서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은 연해주 근처에서 나오는 미네랄 워터(1.8ℓ 한 병에 우리돈 천원 정도이다)를 사먹는다.

물론 아이스크림과 초콜렛을 워낙 좋아하는 러시아인들에게

이 운 형
(경기대 교수, 철학)

강 물은 노래가사 속의 푸른 강 물이 아닌 시멘트 빛이었던 것이다.

러시아 국경수비대의 도움으로 두만강 철교 위에 서서 바라보는 북한 지역이 감회를 새롭게 해 줄 뿐, 두만강의 물 색깔 자체는 전혀 감동적이지 못했다. 다만 러시아, 중국, 북한의 국경수비대들이 두만강을 조개 포진하고 있는 모습은 두만강의 색깔만큼 착잡한 기분을 갖게 하였다.

하바로브스크에서 본 아무르강과 우수리강의 색깔도 두만강에 비해 별로 나올 것은 없다. 그 강들은 마치 장마가 지나간 것 처럼 항상 흙탕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곳은 우리 독립군이 일본군을 혼내준 곳이었다는 사실과 하바로브스크의 잔잔한 도시 분위기에 어울려 그렇게 지저분하게는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반라의 여인들이 일광욕을 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어서 그렇게 느꼈는지도 모르겠다. 속이 전혀 안들여다 보이는 이 흙탕물에서 잡히는 철갑상어는 최소한 3m라고 한다.

내가 가 본 강 중에서 가장 운치있게 느꼈던 강은 네바강이다. 네바강 옆으로 18세기의 건물들이 과거의 모습 그대로 화려하게 서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모습이야말로 강을 끼고 있는 도시가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가를 느끼게 해준다. 거기에 비하면 모스크바의 불가강은 잔잔히 흐르면서도 웬지 침울한 분위기를

갖고 있다. 강 옆의 크레몰린과 성바실리 사원이 마치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감옥의 벽 같은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일까?

러시아에서 가장 깨끗하고 맛있는 물은 역시 바이칼 호수의 물이다. 물이 정말 '맛있다'는 느낌이 들게 만드는 그런 물이다. 처음 바이칼호를 접했을 때 나는 가슴 속에 있었던 뭔가 몽직한 것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워낙 광활하기 때문이었는지, 맑은 물 때문이었는지 지금도 불가사의한 기분이다.

빙산 및 산에서 흘러드는 깨끗한 물들이 바이칼 호수를 만들었고, 그 물의 양은 전세계 담수량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더구나 그 호수와 주변에 사는 생물의 80%는 전 세계에서 오직 바이칼에만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오물릿과 하리스라고 불리우는 생선이 가장 유명하다. 정어리만한 크기의 그 생선들은 마치 모래무지튀김 맛이었는데 두고 두고 생각나는 맛이다.

바이칼호의 유일한 통로는 앙가라 강이다. 따라서 앙가라의 강물은 곧 바이칼의 물이기도 하다. 그 앙가라 강을 끼고 이루쿠츠크라는 도시가 형성되었는데, 전원도시라는 말이 그대로 어울리는 공기가 상큼한 곳이다.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거닐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의 역사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데 비해, 이루쿠츠크에서는 어디

를 가나 산림욕을 하면서 걷는 느낌을 준다.

더구나 블라디보스토크는 석탄과 기름으로 전기발전을 하는 탓에 전기사정이 좋지 않아 항상 초를 준비해 놓고 있어야 했는데, 이루쿠츠크는 수력발전한 전기를 인근 도시로 공급해 주는 여유까지 갖고 있다. 아주 작은 댐이지만 앙가라 강의 물살이 워낙 세어 원자력 발전소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정녕 러시아에서 본 가장 인상 깊었던 물은 또 다른 물이었다. 러시아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던 어느날 평소 나와 가깝게 지내던 한 여학생이 기숙사로 나를 찾아왔다. 그 여학생은 러시아에서의 나의 생활이 유익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로 신경을 써주었었기 때문에 나는 그 여학생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던 터였다. 더 솔직히 말하면 사제지간이라는 장벽만 없었다면, 늙은 괴태가 어린 소녀를 사랑했던 감정을 그 여학생을 향하여 가져보고 싶을 만큼 나에게 친절히 대해준 학생이었다. 그 여학생은 여러가지 선물을 나에게 주었고, 그 여학생의 부모들은 나를 위해 송별회까지 마련해 주면서 "열심히 가르쳐 주어 한 국말을 잘하게 되었다"고 고마워 하였다. 그런데 그 여학생은 주섬주섬 가방을 싸고 있는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교수님, 가지마세요"라고 말하면서 하늘

을 향해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닌가.

파아란 눈에서 이별을 아쉬워하는 눈물을 보는 순간, 나는 러시아에서 겪었던 좋지 않았던 일들(동네 깡패들에게 담배를 빼앗

겼던 일, 블라디보스토크는 우리나라의 땅이었다고 말했다가 러시아인에게 혼난 일 등)이 눈 녹듯 사라지면서 '러시아 사람들은 정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굳혀 버렸다. 그리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치 않고 있다. 그래서 나는 헤어지는 날 그 여학생에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나는 나스차의 눈에서 러시아를 보았다"고. ♣



함산에서 바라본 두만강 철교. 철교 왼편의 산은 북한으로 그 산 넘어 나진·선봉지역이 있으며, 오른편 산은 중국이다. 이곳이 북한·중국·러시아 3개국의 국경이 있는 트라이앵글 지역이다.